

■ 연구원 소식

연구원 사무국 내부 수선 및 재배치 공사(9월 13일~10월 15일)

우리 연구원이 전주대학교 한지산업관으로 이전한 지 올해로 6년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연구원과 협약기관인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와 함께 공간을 이용하다 지난 8월부터 연구원 전용으로 공간을 확보해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소장하고 있던 도서를 정리하고 기존 공간을 최대한 여유롭게 재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 주부터 다음 달 중순까지 진행될 이번 공사를 통해 연구원 내 사무국 옆 공간을 회원들이 상시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도록 사무용 가구와 사무기기를 추가로 설치하고 연구원이 소장하고 있는 도서를 한 공간으로 정리할 예정입니다.

공사가 마무리되면 회원 누구나 자유롭게 연구원 공간을 이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 상황과 제한된 조건이지만 최대한 계획된 일정 내에 공사를 마무리하고 회원들이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게 준비하겠습니다.

에이브버리 열석(Avebury Stone Circle)

김천식(문학박사 / 한국고전문화학연구원 전임 연구원)



에이브버리에 있는 거석문화 유적<필자 촬영>

영국의 대표적 거석문화 유산인 스톤헨지(Stonehenge)에서 북 쪽으로 28km 떨어진 그리 멀지 않은 곳에 또 다른 선사시대 유적이 자리하고 있다. 그곳은 '에이브버리'라는 마을이다. 스톤헨지가 마을과는 동떨어진 광활한 벌판에 우뚝 서 있다고 한다면, 에이브버리 유적은 마을 한쪽에 있는 듯도 하면서 또한 마을의 집들을 둘러싸고 있는 원형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 (다음 장 항공사진 참조)



〈사진 출처 및 현장 설명〉 National Geographic Society, 『Discovering Britain & Ireland』

사진을 보면 원 형태로 거석이 둘러 서 있고 가운데 가옥이 보이지만 이는 후대에 지은 집이고 원래는 평평한 초원이었으며 원 둘레에 독을 제법 높이 쌓고 그 독 아래에 해자를 만들고 그 안쪽에 원을 따라 거석을 세운 것이다. 현장에 가서 이를 보면 상당히 넓은 초원임을 알 수 있고 따라서 그 규모는 매우 웅장하였을 것이라 직감할 수 있다.

이 유적은 석기 시대인 기원 전 3500 - 2500년경에 세우기 시작하였다. 여기에 사용된 거석은 '사슨석'인데, 이 돌은 마을을 둘러싼 평원지대에서 캐낸 것이다. 땅에 매장된 시슨석이 많았던 모양이다. 스톤헨지의 거석도 사슨석인데, 축조할 때 이곳 에이브버리에 가져다가 사용했다고 한다.

이 에이브버리 열석을 세울 당시는 거석이 180여개에 달했다. 거석은 높이가 6m에 무게는 40톤이 나가는데, 어떤 것은 65톤에 달하는 거대한 것도 있다. 거석이 원을 이루며 서 있고 그 안에 수 천 명이 들어가던 공간으로 당시에는 어마어마하게 큰 시설물이었을 터인데, 이 거대한 시설물을 어떻게 왜 만들었으며, 이곳에서 사람들은 무엇을 하였는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알 수가 없다. 어떤 학자는 중앙에 7m 되는 돌이 우뚝 서 있었는데, 이 돌은 하짓날 해가 뜨는 방향을 향하고 있었고 5월 1일 등 1년 중 의미 있는 날에 어떤 의식을 거행했을 것이라고 하고 주민들은 그 돌레를 돌며 춤을 추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아직까지도 명쾌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아무튼 그 많던 거석이 지금은 27개의 선돌만 서 있다. 이유는 후대에 마을 사람들이 이 교도들이 제물을 바치는 곳이라 하여 돌들을 파괴해 버렸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가져가 버렸기 때문이다.

현재 거석은 많이 없어 졌고 스톤헨지 보다 유명세는 덜하지만 마을 전체를 에워싼 11만 m²의 선사시대 유적지인 에이브버리는 인근의 다른 유적지와 함께 고대 유적의 보고라 할 수 있다.

이곳 역시 유적을 포함 마을전체를 내셔널 트러스트(National Trust)에서 관리하고 있다. 이곳에는 솔즈베리나 또는 버스에서 쉽게 갈 수 있다.



독에서 내려다보면 해자가 제법 넓고 깊게 파서 만들어 진 것이 보인다. <필자 촬영>



돌의 크기를 짐작할 수 있다. <필자 촬영>



이 사진은 인증샷



선사시대 유적은 아니지만, 수 백 년 된 영국의 전통 가옥이며, 에이브버리 유적 한 가운데 있다.